

#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 도입을 위한 계획요소 수립 및 기본계획안 설계

홍 서 정(기톨릭대학교 석사) · 전 남 일(기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농촌주거 환경의 발전적 변화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농촌주거와는 차별화된 코하우징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촌에 코하우징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촌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코하우징 계획의 각론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도입 및 정착, 그리고 농촌주거의 발전에 일조를 기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영농자들의 생활현황과 코하우징에 대한 선호도,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물리적 조건과 공동생활시설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계획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단지는 20가구 이하의 소규모로 한다. 2) 개별단위주거는 2-5인 가족을 기준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단독주택이나 단층연립으로 한다. 3) 규모나 외관에 있어서 농촌경관에 친화적으로 디자인한다. 4) 개별단위주택 설계 시 부엌과 외부공간의 연계, 작업공간으로서의 외부공간 마련, 개인실 넓이 확보, 수납장소 마련을 특별히 고려한다. 5) 공동생활시설은 공동식당, 공동부엌, 어린이 시설, 도서관, 다목적 행사장, 공동작업실, 공동식품저장고, 멀티미디어실, 노인복지시설을 기본으로 한다. 6) 외부공동시설로는 안마당에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을 구성하고 단지 외부 쪽으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대형농기구창고를 배치한다.

위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제 경기도 지역의 농촌마을에 임의의 부지를 선정하여 청장년층 영농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기본형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코하우징 단지는 기존의 마을과 연계가 쉬우면서도 구릉 밑에 위치하여 커뮤니티의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였다. 경사형 부지의 입구에는 대형농기구창고를 배치하고 단지 중심에는 공동생활시설을 두었다. 개별단위주거는 완충 공간인 마당을 통하여 공동시설과 연결되며 그 형태는 단층연립과 단독주택으로 하였다. 주차장은 한 군데로 모이지 않고 개별단위주택의 작업동선에 연결이 쉽도록 각 개별단위주거의 뒷문에 가깝게 몇 곳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은 통하여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코하우징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가속되어 농촌 지역발전과 함께 농촌지위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